

# 논술고사 해설지 (인문계열)

---

출제위원장	(인)		
출제위원	(인)	출제위원	(인)
출제위원	(인)	출제위원	(인)
출제위원	(인)		



## 1. 출제 의도

### 1) 논제 파악 및 입론 능력 평가

논쟁적인 주장에 담긴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제시문의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각 분야의 고전이나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또는 그래프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제시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각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 2. 각 제시문의 출처와 내용 소개

[가] 이 제시문은 실용주의 철학자이자 교육가인 존 듀이(J. Dewey)의 저서 『현대 민주주의와 정치 주체의 문제』(홍남기 번역, 씨아이알, 2010)의 148-149쪽의 글을 논술 시험의 목적에 맞게 부분적으로 가공, 편집한 것이다. 듀이는 민주주의적 공공성 또는 공적 가치를 옹호한 정치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제시문에서는 ‘행위 공동체’란 표현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인간의 공동체성 내지 공적 가치의 우선성이 선천적, 형이상학적 근거가 아니라 인간의 실천 행위의 효과라는 실용주의적 근거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있다. 인간은 날 때부터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특정 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에 기반한 교수와 학습을 통해 공동체성을 습득함으로써, 제시문에서 ‘옛 아담’으로 표현된 자신의 자연적, 본능적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제시문의 핵심 내용이다.

[나]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경제 과목 교과서에 소개된 ‘예방 접종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생활 속 경제칼럼을 일부 가공하여 작성하였다. 칼럼의 원 출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클릭 경제 교육”으로 이 자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학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제시문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게 하는 이유를 외부효과라는 경제학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장에 맡겨두면 이로온 외부효과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교정한다는 것이 본 제시문의 주요 내용이다.

[다] 이 제시문은 김억(金億, 1895~?)이 1938년 9월 24일자 『매일신보』에 게재한 「사투리 옹호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제시문에서 필자는 표준어를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사투리 대신 표준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각 지역 사람들의 섬세하고 절실한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발음은 변하고 어휘도 계속하여 생겨나는 것이 언어의 속성인데 이것을 무시한 채 표준어를 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하면서 표준어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라] 이 제시문은 이문영의 『웅크린 말들: 말해지지 않는 말들의 한恨국어사전』(후마니타스, 2017)의 “전기: 우리의 전선(電線), 그들의 전선(戰線)”의 한 대목을 발췌하여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 책은 신문 기자인 저자가 한국 사회의 소외된 지역이나 사람들, 모순과 갈등의 현장 등을 취재하며 남긴 일종의 르포이자 산문집이다. 제시문에서 인용한 부분은 2014년 송전탑 건설을 앞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밀양을 취재한 내용으로 한국전력과 경찰이 주민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이후의 풍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제시문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정부와 전력회사는 도시의 공익을 위해 송전탑 건설을 강행했고, 초고압 전류가 흘러 피해를 보게 된 송전탑이 지나가는 구역의 주민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제시문은 이 갈등 속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그들의 편에서 이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 3. 문항 설명

####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 이 문제는 특정 제시문의 요약 능력, 다른 제시문들과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문항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으로 요약한 뒤, [가]와 견해나 관점을 달리 하는 제시문을 모두 골라 [가]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 [가]의 내용 요약

제시문의 요약은 제시문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자수 제한 조건에 맞춰 재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인간성의 징표인 공동체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상호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상호 의사소통에 기반한 교육과 학습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 의미와 결과들을 습득하고 평가함으로써 공동체의 핵심 요소인 공적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공동체성을 실제 행위를 통해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자연적 본성, 즉 욕구, 충동, 권력 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사익추구 행위의 부정적인 효과들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

2. 제시문 [가]와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다]와 [라]이다. [가]는 우리가 행위공동체의 성원으로, 또는 개개인들의 집합체가 행위 공동체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공동체성이 학

습과 교육에 의해서 길러져야 하고, 자연 상태로의 복귀를 막기 위한 바람직한 방식은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의존적 활동의 필요성에 관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공동체로의 지향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공동체에서 벗어난 개인들은 착취와 종속의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제시문은 학습이나 교육 등 인위적 조치를 통해 공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제시문 [다]는 인위적 표준으로서 표준어의 보급에 대해 사투리라는 개별 언어를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공익을 지향하며 교육이나 학습 등 인위적 조치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가]와 배치된다. 또한 제시문 [라]는 정부가 마을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끌어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상호의존적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 관심사의 도출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익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과 반발을 우호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정부의 인위적 조치에 반대하며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서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와 차이를 드러낸다.

## 2-1. 제시문 [다]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다]는 표준어를 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각 지방 사람들이 사투리로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을 섬세하고 절실하게 표현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표준어를 정해 놓는다고 하여도 어휘와 발음은 계속하여 변화하는 것이므로 그 표준어도 변할 수밖에 없으며 사투리였던 것이 표준어가 될 수도 있음을 보이면서 표준어의 제정이 별 유익이 없으며 오히려 사투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표준어를 통해 공동체 언어를 인위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보다는 각 개인의 사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는 각 지역의 사투리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상호 의사소통에 바탕을 둔 교육과 학습에 의해 공동체의 핵심 요소인 공적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고 보는 제시문 [가]와는 배치되는 견해이다.

## 2-2. 제시문 [라]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제시문 [라]는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부와 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공동체를 위해 송전탑을 건설한다고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해온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고 서로 갈등하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즉, 다수의 공익을 위해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의 이익을 침해하고 희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의존적 활동의 결과들을 공유하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합당한 행위를 유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공익적 관점을 가진 제시문 [가]와는 배치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문제 2】

<사례 1> A대학교에 입학한 200명의 신입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생들에게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선보인 후 그 품질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다음 제비뽑기로 당첨된 100명의 학생들에게 티셔츠를 나누어 주었다. 티셔츠를 받은 학생들(그룹 1)에게는 “얼마를 받는다면 티셔츠를 포기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하고, 티셔츠를 받지 못한 학생들(그룹 2)에게는 “티셔츠를 얼마에 살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응답을 집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례 2> B시에서 아파트를 판매하고자 하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현재의 시세(時勢)가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그룹 3)와 높은 경우(그룹 4)의 두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각 그룹의 판매자들이 설정한 호가(呼價)를 현재의 시세와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사례 1>과 <사례 2>가 시사하는 바를 각각 서술하고 두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밝히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 이 문제는 도표와 그림을 이해하고, 이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1. 개요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손실에 대한 거부감’을 두 사례를 통해 추론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다.

### 2. 해설

<사례 1>은 2008년도에 발간된 Richard H. Thaler와 Cass R. Sunstein의 저서 『Nudge』 33쪽에 제시된 사례를 활용한 것이다. 우선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의 품질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기준가격(reservation price)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 다음 제비뽑기를 통해서 절반의 신입생들에게 그 티셔츠를 나누어 주었다. 당첨된 학생들은 새로 입학한 학교의 기념품을 운 좋게 무료로 획득했다는 즐거움으로 인해 티셔츠에 대한 선호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는 예상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티셔츠를 받은 학생들(그룹 1)은 티셔츠를 포기하는 대가로 17,000원 내외를 요구하는 반면 티셔츠를 받지 못한 학생들(그룹 2)은 이미 설정된 기준가격인 10,000원 정도에 티셔츠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모든 학생들이 티셔츠의 품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그룹이 동일한 물건의 가격을 다르게 평가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행동이 항상 일관되거나 합리적이지는 않음을 암시한다. 구체적으로 그룹 1에 속한 학생들은 그룹 2에 속한 학생들에 비해 티셔츠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매기고 있다. 이는 자기가 운 좋게 무료로 획득한 물건을 포기함에 따른 불쾌감이 같은 물건을 구입하여 얻는데 따른 행복감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사례 2>는 David Genesove와 Christopher Mayer가 2001년에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발표한 논문 “Loss Aversion and Seller Behavior: Evidence from the Housing Market”의 실증분석 결과를 이용한 것이다. B시에서 아파트를 판매하고자 하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세가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그룹 3) 시세보다 30% 정도 높은 호가를 설정한 반면 시세가 구입가격보다 높은 경우(그룹 4) 시세와 비슷한 호가를 선택하였다. 그룹 3은 시세 기준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판매자들의 그룹인데 그들이 시세보다 높은 호가를 제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첫째, 시세보다 가격이 상당히 높은 매물은 즉각적으로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하는 판매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둘째, 판매가 지연될 경우 시장에 나온 매물의 규모가 증가하여 가격이 더 하락하고 예상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셋째, 아파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후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판매 시기가 늦어질수록 가격이 더 떨어져 예상보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손해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고자 하는 심리 때문에 발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두 사례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서 정립된 개념인 “손해에 대한 거부감(loss aversion)”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히 자산시장에서 빈번하게 목격된다. 주택 판매자의 경우 손실이 실현되는 것을 매우 불쾌해하며 주식 보유자의 경우 손절매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동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자산 시장에서 특정한 규모의 손해가 예상되는 자산 판매자의 경우 같은 규모의 이득이 예상되는 판매자에 비해 높은 기준가격(reservation price)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답안 예시

<사례 1>은 티셔츠를 받은 학생들이 그것을 포기하는 대가로 17,000원 정도를 요구한 반면 못 받은 학생들은 10,000원 내외의 가격에 티셔츠를 구입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운 좋게 무료로 획득한 학교의 기념품을 포기함에 따른 불쾌함이 그 물건을 구입함에 따른 즐거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 2>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자들 중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판매자는 시세보다 30퍼센트 높은 호가를 설정하는 반면 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와 비슷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손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를 보여준다.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손실에 대한 상대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손해를 봄으로써 발생하는 불쾌함이 이익을 봄에 따른 즐거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문제 3】

<보기>는 어떤 시의 내용이다. 이 시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 이 문제는 주어진 논제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오직 제시문의 논거만을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1. 개요

<보기>의 시는, 제시문의 앞부분에서 밤새 그치지 않고 내린 비가 지붕 사이로 흘러내려 그로 인해 잠자리며 몸이 온통 젖은 채 힘든 밤을 지새운 상황을 그리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자신의 힘든 처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넓고 좋은 집을 지어 온 세상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었으면 하는, 타인을 향한 마음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구의 “내 집이야 무너지고 이 몸 얼어 죽는다 한들 마다하지 않으려만.”이라는 말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인위적 조치를 통해 공익의 실현을 염원하는 시인의 마음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보기> 시의 주제에 찬성하려면, 제시문들 가운데 인위적 조치를 통해 공익의 실현을 주장하는 [가]와 [나]의 논거는 적극 지지하는 반면, 사익을 우선시하는 [다]와 [라]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거꾸로 <보기> 시의 주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다]와



[라]의 논거는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가]와 [나]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나아가 <보기> 시의 주제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제시문의 논거들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 내용을 단순 나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문제의 요구사항, 즉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한다.’는 시인의 뜻이 설득력을 갖도록 논리적으로 잘 조직해야 한다.

## 2. 제시문의 논거 활용

### 1) 공익 우선시에 찬성하는 입장

[가] 제시문 [가]는 인간성을 결정하는 요소인 공동체성이 실제 경험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의미와 결과를 경험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보기>에서 시인이 피력하고 있는 만백성에게 이로운 가치, 즉 공적 이익을 옹호하는 데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를 끌어와야 한다. 첫째,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 즉 공익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만백성에게 천만 칸 넓은 집을 지어주려는 시인의 공익 지향적 정신은 그가 인간인 이상 당연히 가지고 있을 공동체성, 즉 타인과 더불어 공존, 공영하려는 인간성이 필연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이러한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 학습된 것이라는 근거이다. 즉 내 집이야 무너진다 한들 만백성이 살 집부터 지어야 한다는 멸사봉공의 정신은 시인의 타고난 천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그가 당대를 살면서 전란으로 인한 만백성의 어려운 처지를 직접 목격하고 때로는 그들과 교류 내지 소통하면서 갖게 된, 그러니까 실제의 경험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보다 공동의 삶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시인의 정신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처럼 그의 측은지심이 당대 현실과의 소통에서 직접 배우고 익힌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제시문 [나]는 정부가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으면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올라갈 것이고 누구나 병에 걸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예방 접종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예방 접종이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나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예방 접종을 하면 내가 전염될 확률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굳이 나는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할 유인이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나서서 예방 접종을 강제하되 저소득층에게 비용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보조하여 전염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건강한 삶이라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잘 설명하면 본 제시문을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한다는 <보기> 시의 주제를 찬성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 <보기> 시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각 개인이 사용하는 사투리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표준어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다]의 논거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사투리가 그 지역 사람들의 감정이나 사상을 더 잘 표현해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한 언어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표준어의 제정과 사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한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 결국 사투리의 사용보다는 표준어를 제정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한 개인 혹은 한 지역이 아닌 한 언어공동체의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제시문 [라]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마을 주민의 편에서 이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는 어조를 띠고 있다. 게다가 이 상황을 도시의 불빛이 마을의 눈물을 빨아먹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방식으로 묘사하여, 도시의 다수의 이익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렇듯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단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은 침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님비(NIMBY) 현상이 만연한다면, 공익을 위한 공동체의 활동은 어떤 것도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집단의 이기적인 행위나 이익 보호를 빌미로 공동체의 발전이나 다수의 이익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기간 시설 건설이나 공공사업의 진행을 막아 막대한 비용을 소모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사익을 일정하게 보호하면서도 공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제시문 [라]의 입장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보기> 시의 주제와는 배치되는 입장으로 활용가능하다.

## 2) 공익 우선시에 반대하는 입장

[가] 제시문 [가]에서는 인간의 공동체성을 교수와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성 자체와 동일시하는 반면, 교육되지 않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자연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 즉 공동체성의 습득을 후자, 즉 욕구와 충동에 지배되는 인간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의 부정적 효과를 치유, 극복하는 유일한 길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 드러난 시인의 공익 지향적 정신을 비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문의 주장과는 반대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그 어떤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도 변화하지 않는 불변의 자연적 본성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이 공익보다 사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무리 공동체 교육의 효과를 강조하더라도 절대 소멸되지 않는 “완고한” 본성, 즉 ‘옛 아담’의 발로라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기>에서 시인은 당대의 전란으로 인해 자신의 거처조차 황폐해진 상황에서 우선은 자기 집부터 짓는 것이 본성에 충실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만백성을 향한 측은지심보다 우선 자기 앞가림부터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무엇보다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익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물적 본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제시문의 주장과 달리, 인간의 이기적 행위는 결코 교화될 수 없는 자연적, 선천적 본성에 뿌리박고 있다.

[나] 정부가 예방 접종을 전액 지원한다고 해서 예방 접종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방 접종을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부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이 사람의 경우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다른 방법을 통해 노력할 것이므로 정부가 무조건 예방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즉, 예방 접종이 ‘누구나’, 그리고 ‘꼭 맞아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는 옳지 않다. 정부가 공익 시행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개인



의 자유로운 결정에 개입할 경우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크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의 개입으로 침해되는 전체 사익의 크기가 창출되는 공익의 크기보다 크다고 하면 과연 공익을 앞세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논리를 전개한다면 본 제시문을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한다는 <보기> 시의 주제를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 표준어를 제정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열거하며 사투리의 사용을 옹호하고 있는 제시문 [다]는 <보기> 시의 주제에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표준어의 제정과 보급을 통해 언어의 통일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어의 다양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사투리는 표준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해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결국 표준어 정책은 공익을 앞세워 각 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사투리의 사용을 막고 있는 것이다.

[라] 제시문 [라]에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묘사한 것과 같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송전탑은 도시에 사는 다수를 위해 건설하는 것이지만 송전탑이 세워진 인근 지역에 초고압 전류가 흘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농사를 망치고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일부 지역의 “눈물을 빨아먹으며” 도시가 “키가 자라고 덩치가 커졌다”고 비유했듯이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해당 지역 사람들이 응당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한국 사회에서는 송전탑 외에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화장터 등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기간 시설 건설 과정에서 공익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소수 지역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가 공익이라는 명분을 위해 소수의 사익을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언제든지 전체 주의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제시문 [라]의 입장은 개인을 희생해서라도 공익을 추구하려는 <보기> 시의 주제와는 반대되는 논거로 활용 가능하다.

## 4. 문제별 평가 기준 및 점수 부여

### 【공통으로 유의할 사항】

- 각 문제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제에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 【문제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 <유의 사항>

- 100점 중 요약에 30점, 견해나 관점이 다른 지문 찾기에 10점, 차이점 밝히기에 60점을 배정한다.

#### 1) 제시문 [가] 요약: 30점

- 30점 - 2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요약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요약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거나 요약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 2)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 찾기: 10점

- 10점: [다]와 [라]를 모두 찾은 경우.
- 5점: 하나만 찾은 경우.
- 0점: 둘 다 못 찾은 경우.

#### 3)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의 논거 요약 및 차이점 밝히기: 60점

- 60점 - 51점: [다]와 [라]의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술하였을 경우.
- 50점 - 41점: [다]와 [라]의 논거를 제시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 40점 - 31점: [다]와 [라]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혹은 [다]와 [라]의 논거를 제시하였지만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30점 - 21점: [다]와 [라]의 논거를 모두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였을 경우, 또는 [다]와 [라]의 논거 중 하나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을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다]와 [라]의 논거를 모두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다]와 [라]의 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가]와의 차이점도 전혀 기술하지 못하였을 경우.

【문제 2】

<사례 1> A대학교에 입학한 200명의 신입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생들에게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선보인 후 그 품질을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다음 제비뽑기로 당첨된 100명의 학생들에게 티셔츠를 나누어 주었다. 티셔츠를 받은 학생들(그룹 1)에게는 “얼마를 받는다면 티셔츠를 포기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하고, 티셔츠를 받지 못한 학생들(그룹 2)에게는 “티셔츠를 얼마에 살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응답을 집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례 2> B시에서 아파트를 판매하고자 하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현재의 시세(時勢)가 본인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그룹 3)와 높은 경우(그룹 4)의 두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각 그룹의 판매자들이 설정한 호가(呼價)를 현재의 시세와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사례 1>과 <사례 2>가 시사하는 바를 각각 서술하고 두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밝히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유의 사항>

- 100점 중 두 사례의 시사점을 기술하는 것에 70점을, 그 공통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30점을 배정한다.

1) 그림과 표의 시사점 기술: 70점

- 70점 - 36점: 두 사례에서 나타난 행태가 시사하는 바를 모두 효과적으로 기술한 경우
- 35점 - 11점: 한 가지 사례의 시사점만 정확히 기술한 경우
- 10점 - 0점: 시사점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2) 공통점 설명: 30점

- 30점 - 21점: 모범답안에서 제시된 공통점이 논리적으로 제시된 경우
- 20점 - 11점: 설명을 함에 있어 일부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 10점 - 6점: 논리적 설득력이 약한 주장을 한 경우
- 5점 - 0점: 논리적 설득력이 전혀 없는 답을 제시한 경우

【문제 3】

<보기>는 어떤 시의 내용이다. 이 시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유의 사항>

- 전체 100점 중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지지하면서 활용한 데 3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비판하면서 활용한 데에 50점, 그리고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에 20점을 배정한다.

1)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30점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정당화 했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다소 부적절하게 정당화했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들의 논거를 활용하지 못하였거나, 제시문과 무관한 논거를 활용하여 정당화하였을 경우.

2)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 활용: 50점

- 50점 - 4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 40점 - 3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입장과 관련지어 다소 부적절하게 비판하면서 활용했을 경우.
- 30점 - 2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자신의 주장과 관련짓지 않은 채 비판하였거나, 또는 둘 중 한 제시문의 논거만을 자신의 주장과 관련지어 비판하였을 경우.
- 20점 - 11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적 그럴 듯하게 비판하였을 경우.
- 10점 - 0점: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들의 논거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제시문의 내용을 부적절한 근거로 비판하였을 경우.

3) 표현력을 포함한 글의 논리적 구성력: 20점

- 20점 - 11점: 표현이 정확하면서 글의 구성이 논리적일 경우
- 10점 - 0점: 표현이 부정확하고 글의 구성이 비논리적일 경우